

## 상품 좋아도 5년 간 최저 가격... 고흥 유자의 '눈물'

고흥군 특산물 2000여 농가 연 5500톤 생산 수도권 대기업에 납품  
가공업체협, 공급가격 대폭 낮춰 ... 지역 농수축산물 대책 마련 시급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 가격이 올 들어 급락하고 있다. 가공·유통·무역을 맡고 있는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유자 공급 가격을 지난해보다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혔다는 이유다. 고흥 유자만이 아니라 전남의 농수축산물 상당량이 지역 내에서 가공·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가 가치를 타 지역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흥군 유자가공업체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농가로부터 무려 5년간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유자 최저가격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가 대표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더 높은 가격을 주장했으나 가공업체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 내 영세가공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쌓여있는 유자 절임도 수도권 대기업들이 납품을 거부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자 농가와 유자 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나 가공 방식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고, 지역 내 영세가공업체들이 완제품이 아닌 절임 형태로 수도권 대기업에 납기면서 시장 가격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거기에 높은 환율,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유자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고흥군, 완도군,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도내 유자농가는 고흥군 2000여 가구, 완도군 340여 가구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각 지난해 5500t, 2200t 등이 생산됐다. 현재 유자 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봄 한파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유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유자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 납품단가는 지난해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업체와 농가 사이에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흥군 인구 6만4000여명 중 1~2만명이 직간접으로 유자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자산업의 침체는 고흥지역 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지난달 가공업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유자 최저 가격을 향후 5년간 1kg 2500원에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가 대표는 2700원을

주장했으나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2900~3200원선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특히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장 상품성이 있는 유자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탓에 납품 단가는 상품의 경우 2500~3000원, 중품 1800~2400원, 하품 1000~1700원, 파지 500원 등으로 결정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과실의 크기가 작아졌다 작황도 좋지 못해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면 울상을 짓고 있다. 가공업체들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납품받아 생산한 유자절임 상당수가 재고로 남아 있어 손해를 감수하고 유자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가공업체 관계자는 "유자청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유자 생산량이 최근 급속히 증가했으나 가공업체 수는 변함없고, 대부분 절임 상태로 대기업에 공급하는 신세"라며 "대기업들이 지난해 재고 물량을 안 가져 가면서 올해 유자 가격을 높게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고흥에서는 지난 2019년 10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유자 농가가 올해 2000여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완도에서도 유자나무를 꾸준히 식재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른 가공업체 관계자는 "유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생산, 가공, 유통 등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제품도 다양하지 못해 유자청 하나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흥군, 전남도 등이 미국 등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흥 유자가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영세업체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공·유통업체만이 아니라 농가들도 쉽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판매시설을 지원하는 등 유자 산업의 고도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자는 고흥과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상고대 '할딱' 한파특보가 발효된 30일 무등산 국립공원에 올린 첫 상고대가 피었다. 누애봉 인근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나무 가지 사이에 맺힌 얼음꽃 사이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화물연대 파업에 ... 건설 공사현장 '스톱'

광주·전남 레미콘 업체 '셋다운'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 진행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주요 건설 공사현장이 멈춰 섰다.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역 내 관급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민간 주택건설현장 역시 속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30일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과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이더) 차량 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업체가 가동을 멈추는 등 사실상 '셋다운'됐다.

원재료인 시멘트를 납품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들이 콘크리트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체가 셋다운되면서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17개동 1830세대 규모의 관급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현장도 파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부터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콘크

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공정 대신 형틀과 철근 작업 등 다른 공정으로 대체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현장소장의 설명이다. 당장 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건설근로자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현장소장 A씨는 "파업이 끝나도 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최소 일주일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건설 공사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급 공사 현장인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4일부터 공정이 중단됐고,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현장 역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현장도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빛그린산단 개방향 체육관 등 대규모 관급 공사 현장이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광산구 선운지구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도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됐고, 북구 유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 건설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철근 생산 업체 역시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현장의 철근 납품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못해 골조 공사가 늦어지면 다른 작업 역시 연속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추운 겨울철엔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길어져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근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

군 장성 인사, 김계한 내정

정부는 지난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한(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해군에서는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이 참모차장으로, 김병수 참모차장이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겨 보직을 맡아냈다.

또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

보육원·경로원 '키다리 아저씨' 기부 줄었다 ▶7면

이강인·조규성 폼비 '도하의 기적' 쓴다 ▶18면

신 팔도명물 - 제주 마라도 모슬포 방어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The new EQE

모든 순간, 모든 감각을 깨우다.  
This is for all sense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동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4륜구동(전기) (km/W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원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